

# 장성 축령산 주민·지역 사진가 '아름다운 동행' 공동체 활성화

### 서삼면 주민자치위-장성군사진가협회 자매 결연 야외 숲 여행사진·작품 전시회·사진 강좌 운영

장성군 서삼면 주민들이 지역 사진가들과 손잡았다. 군에 따르면 서삼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장성군사진가협회가 15일 서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서삼면은 장성의 관광명소인 축령

산으로 유명하다. 축령산은 편백나무를 비롯해 삼나무, 낙엽송 등 수령 50년 이상 된 나무들로 이루어진 700여헥타르의 숲을 지녔다. 춘월 임종국 선생이 일군 이곳은 '치유의 숲'으로 잘 알려져 있다. 축령

산 편백숲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증강, 살균작용 등의 효과가 탁월하다. 공기 정화 효과도 있어, 전국 산촌마을 대기질 조사에서 오존 수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다. 서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곳에서 야외 숲 여행사진 강좌와 작품 전시회를 열어 장성군사진가협회에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가협회는 재능기부를 통해 현

장 출사와 사진 강좌를 운영, 주민 역량 강화와 여가 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삼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활발한 교류로 마을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장성 축령산은 지난해 70억원 규모 공모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었다. 기동취재본부



## 곡성군, 10월 예정 '심청어린이대축제' 취소



곡성군은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곡성 심청어린이대축제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알려진 관음사 연기설화가 탄생한 곳이다. 이를 바탕으로 곡성군은 매해 가을에 심청축제를 개최하며 지역 대표 축제로 발돋움시켰다. 올해

는 20년차를 맞아 심청어린이대축제라는 어린이와 가족 중심 축제로의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지속되며 결국 발목을 잡았다. 곡성군은 이미 5월에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취소한 바 있다. 축제장인 곡성기차마을 인근 상권의 손실이 막대했다. 따라서 곡성군은 가능한 한 심청어린이축제를 개최한다는 입장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계속 지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 예정일이 다가오자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곡성 심청축제추진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진정과 확산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도 코로나19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다. 아쉽지만 올해는 축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기자

##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자 공모

### 화순군, 10월부터 4개월간...오는 29일까지 접수

화순군이 세계유산인 화순고인돌 유적지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전승할 '2020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 운영자는 '화순고인돌 선사마을에서 살아보기'를 주제로 고인돌 선사마을 생활재현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선사시대 생활도구를 제작·전시한다. 화순고인돌 유적지와 선사체험장, 대신리 문화체험관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억7482만 원(국비 50%)이고, 사업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4개월간이다. 공모 참여 자격 요건은 화순군에 주

소를 둔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기관이다. 참가 희망 단체는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9월 29일까지 군청 문화예술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계획 적합성, 사업추진 역량,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개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 발표는 10월 중 심사평가와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공급한 사항은 화순군 문화예술과 세계유산팀(061-379-3515)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나주시 '청년 창업거리' 조성

### 원도심 읍성권 거리...16개 점포 개점·운영

나주시 원도심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에 활력을 더해줄 청년 창업거리가 조성됐다. 나주시는 원도심 읍성권 거리에 비어있던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0일부터 16개 점포가 개점·운영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원도심 청년 창업거리 조성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공개 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지속가능성, 의지, 창의성 등을 평가하고 청년 창업주 16명을 사업대상자

로 최종 선정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총 8억4500만원(국비3억1900·시비 5억2600)을 투입해 사업장 리모델링, 상가 임차, 홍보, 컨설팅 비용 등을 청년 창업주에게 지원한다. 청년 창업거리는 읍성권 '서성문·급담길·금성관길·나주로' 약 1km구간에 조성됐다. 청년 창업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녹아든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점포가 운영된다. 16개 점포 업종은 목공예·캐릭터 아트상품·원예·디퓨저·국악커뮤니티

등 '문화·예술창작 8개소', 갈비탕·카페·제빵 등 '먹거리 5개소', 웨딩·주방 소품·야기 옷 등 의류·잡화 점포 3개소로 각각 구성됐다. 개장식은 당초 지난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이날 25일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나주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역사·문화자원에 특화된 읍성권 관광,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구례군, 섬진강댐·주암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 피해 대책·배상 성명서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이 14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정정섭 의

원 외 6명의 공동발의로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 대책 및 배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의 대표발의자인 정정섭 의원은 제안 배경으로 "8월 초 집중호우로 발생한 섬진강 상·하류지역 침수 사태는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수문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

부실로 일어난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며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 인정과 피해액 배상 및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이번 수해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 대책 및 배상 촉구

성명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피해 배상요청 ▲환경부의 수해 원인 및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의 복구비용 산정기준안 마련 요청 등 구례군 수해구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 담양군 곤충산업, 날개를 달다

### 농업회사법인 오엠오와식용곤충미국 수출 선적식 가져



담양군은 지난 17일 농업회사법인 오엠오와 함께 담양군 식용곤충(밀웜)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식에는 최형식 군수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곤충산업연구소 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엠오 대표 및 곤충 농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사업 경위 및 추진 소개에 나

선 오엠오 허누림 대표는 미국 Manna Food Company(대표 Luke Wright)와 연간 30,000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날 3,000\$에 달하는 물량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품목 발굴, 생산단지 육성, 가공식품 개발, 국가별 선호 농식품 조사와 판촉행사를 지원하고 식용곤충 생산표준화 등의 새로운 농업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곤충산업연구소와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담양군 곤충지원연구회, 농업회사법인 오엠오는 담양군과 전남의 곤충산업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